

호주, AUKUS 핵추진 잠수함 공급망 확대를 위한 산업계 참여 본격화

'26.08.13(목), 멜버른무역관

□ 개요

- 호주가 AUKUS 핵추진 잠수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지 산업계의 공급망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 단위 산업계 대상 로드쇼를 추진

□ 상세내용

- AUKUS 잠수함 사업의 공급망 확대
 - SSN-AUKUS(차세대 핵추진 공격잠수함)는 장기간에 걸쳐 호주에서 건조되는 대형 방산 사업으로, 핵심 조선업체뿐 아니라 제조·부품·정비·품질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공급망 확보가 중요함
 - BAE System 역시 SSN-AUKUS 사업을 위해 공급망의 역량과 회복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전국 단위 AUKUS 공급망 로드쇼 개최
 - 이러한 공급망 확대의 일환으로 ASC(Australian Submarine Corporation)와 BAE Systems는 호주 기업을 대상으로 AUKUS 사업 참여 기회를 알리고 잠재적인 공급업체를 발굴하기 위한 전국 단위 공급망 로드쇼를 개최하고 있음
 - 앞서 애들레이드와 퍼스에서 개최한 컨퍼런스를 바탕으로 브리즈번에서 첫 전국 단위 로드쇼를 개최했으며, 향후 수개월 동안 헌터 밸리, 멜버른, 호바트에서도 행사를 진행할 예정임
-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
 - 호주 방산기업들은 기존 공급망뿐 아니라 새로운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AUKUS 관련 장기 사업에 필요한 생산능력과 전문 기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무역관 의견

- 이번 로드쇼는 AUKUS가 단순히 미국·영국·호주 정부 및 대형 방산기업 간 협력에 그치지 않고, 호주 내 중소·중견기업까지 참여하는 장기적인 산업 공급망 구축 단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
- 특히 호주 정부와 주요 방산기업이 AUKUS 사업에 필요한 공급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호주 방산시장은 완성형 무기체계뿐 아니라 부품·소재·제조 장비·기술 서비스 등 공급망 전반에서 사업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 방산기업 및 조선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에 진입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한국 기업이 보유한 조선·방산 제조기술과 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을 활용해 현지 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호주 방산시장 진출에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정보원 및 일자

- * 2026년 8월 11일, APDR(<https://asiapacificdefencereporter.com/defence-partners-launch-nationwide-aukus-supply-chain-roadshow>)
- * 2026년 8월 7일, BAE Systems(<https://www.baesystems.com/en-aus/insight/aukus-docks-in-brisbane>)